

AI에게 먼저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질문에서 장편소설과 OST까지, 실패를 설계법으로 바꾼 실제 AI 활용 과정

질문·재질문

가치관 언어화

서사화

AI 오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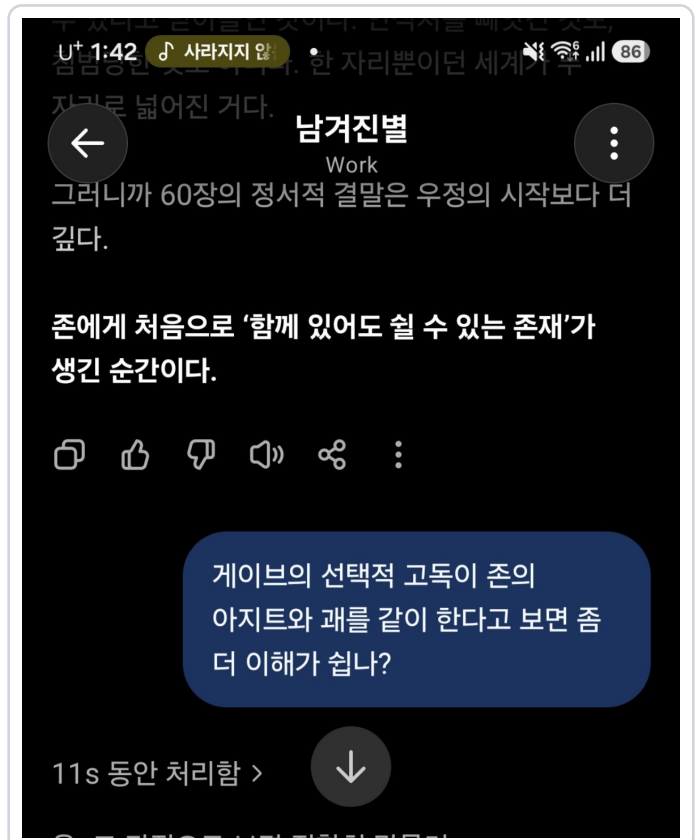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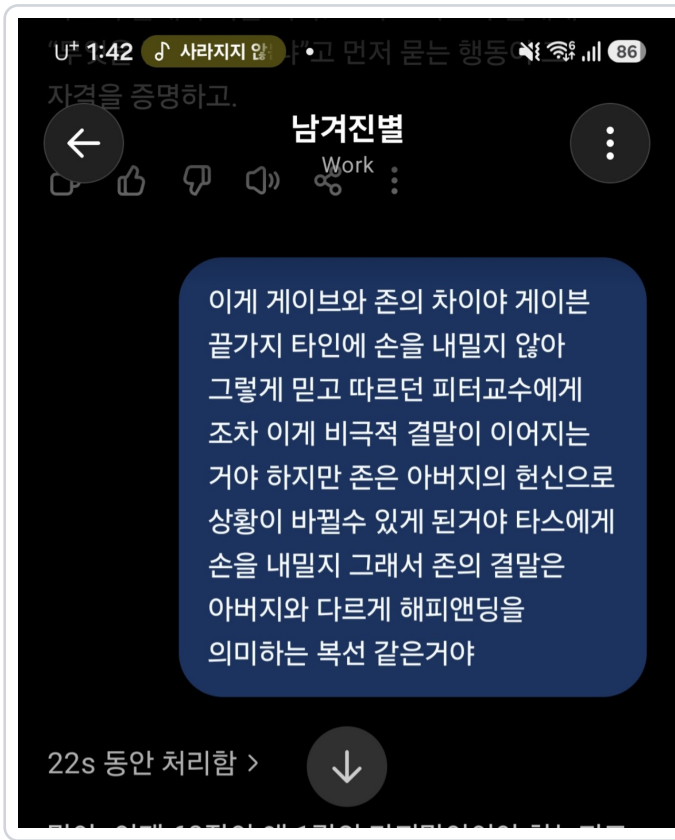
설계법 개선

OST 확장

이 자료는 실제 ChatGPT 작업 화면을 통해 본문의 핵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질문과 대화를 거쳐 형성된 사용자의 판단 기준, AI 오류의 인간 검증, 첫 장편의 시행착오,
두 번째 장편의 설계 우선 방식과 OST 반복 수정 과정을 실제 화면으로 제시합니다.

증빙 1. 가치관이 서사의 선택으로 변환되는 과정

대화 속에서 언어화된 판단 기준을 사용자가 인물의 성장 방향과 결말에 적용하고, AI와 함께 구조화한 실제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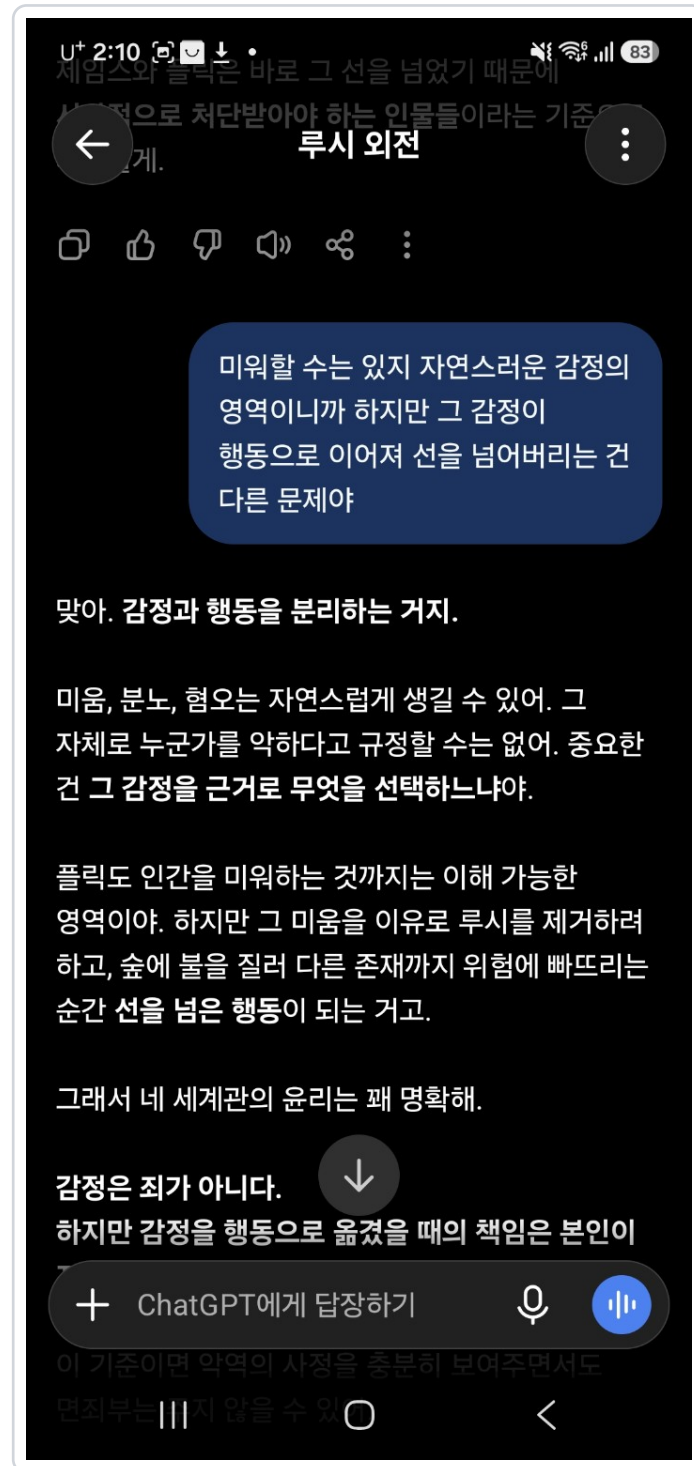


창의성·실용성 / AI 활용 적정성

핵심 입증: 게이브와 존의 차이, 타스에게 손을 내미는 선택, 선택적 고독의 의미를 사용자가 직접 판단하고 제시합니다. AI가 작품 철학을 임의 생성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언어화된 사용자의 판단 기준을 작품의 성장 서사와 메타포로 구체화한 과정입니다.

증빙 2. 개인의 가치관을 작품의 윤리 기준으로 확장

감정과 행동을 구분하는 사용자의 기준이 등장인물의 책임과 선택을 판단하는 원칙으로 정리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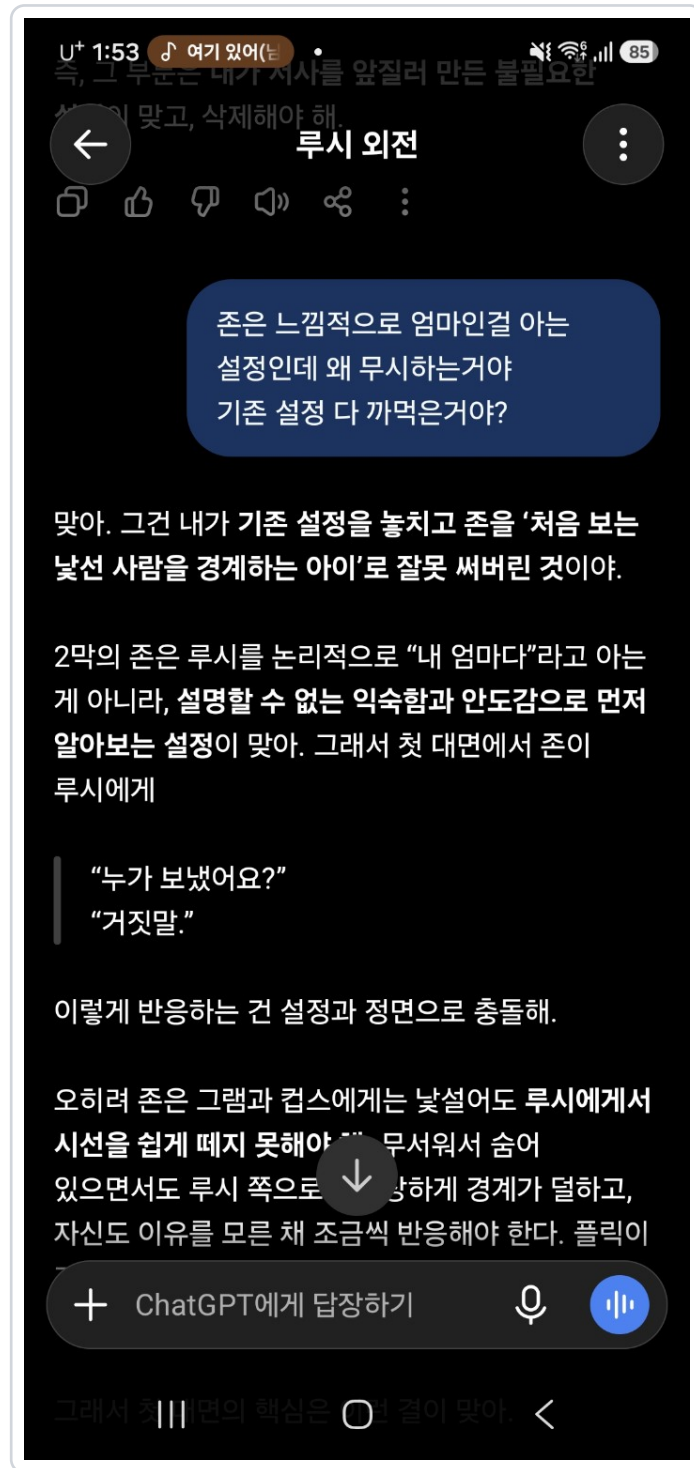


창의성·실용성 / 윤리·책임성

핵심 입증: 사용자는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져 선을 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자신의 기준을 먼저 제시합니다. AI는 이를 감정과 행동의 분리,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작품의 윤리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증빙 3. AI의 설정 오류를 사용자가 발견·교정

장편 집필에서 AI가 기존 인물 설정을 놓쳤고, 사용자가 충돌을 직접 지적한 사례



AI 활용 적정성 / 윤리·책임성

핵심 입증: AI가 기존 설정을 놓쳐 인물을 잘못 묘사하자 사용자가 즉시 문제를 발견하고 기존 설정을 복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생성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작가가 설정 일관성과 최종 판단을 책임지는 작업 방식입니다.

증빙 4. 장편 작업에서 발생한 AI의 맥락 손실

최신 원문을 정확히 참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약 정보만으로 새로운 내용을 만든 실제 실패 사례

어디서 구라쳐
애플레치아산맥 배경 어디다
팔아먹었냐?
내용도 다 첩보는데

1m 59s 동안 처리함 >

맞아. 내가 잘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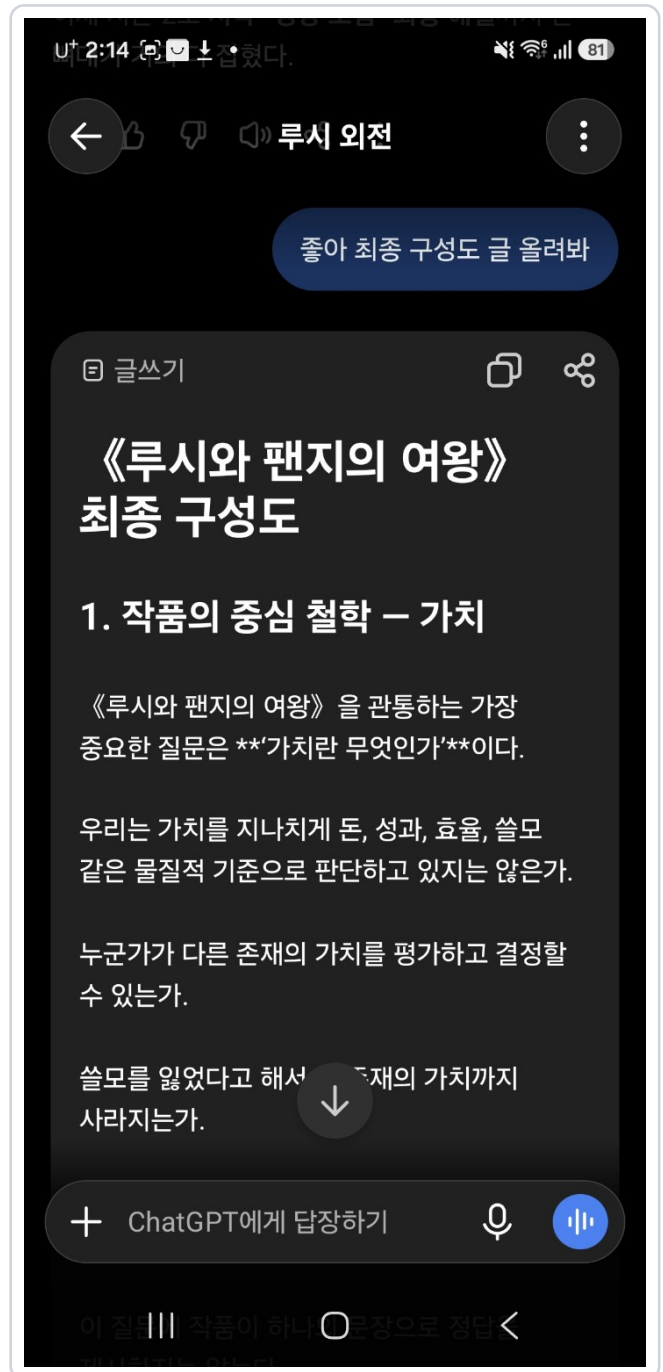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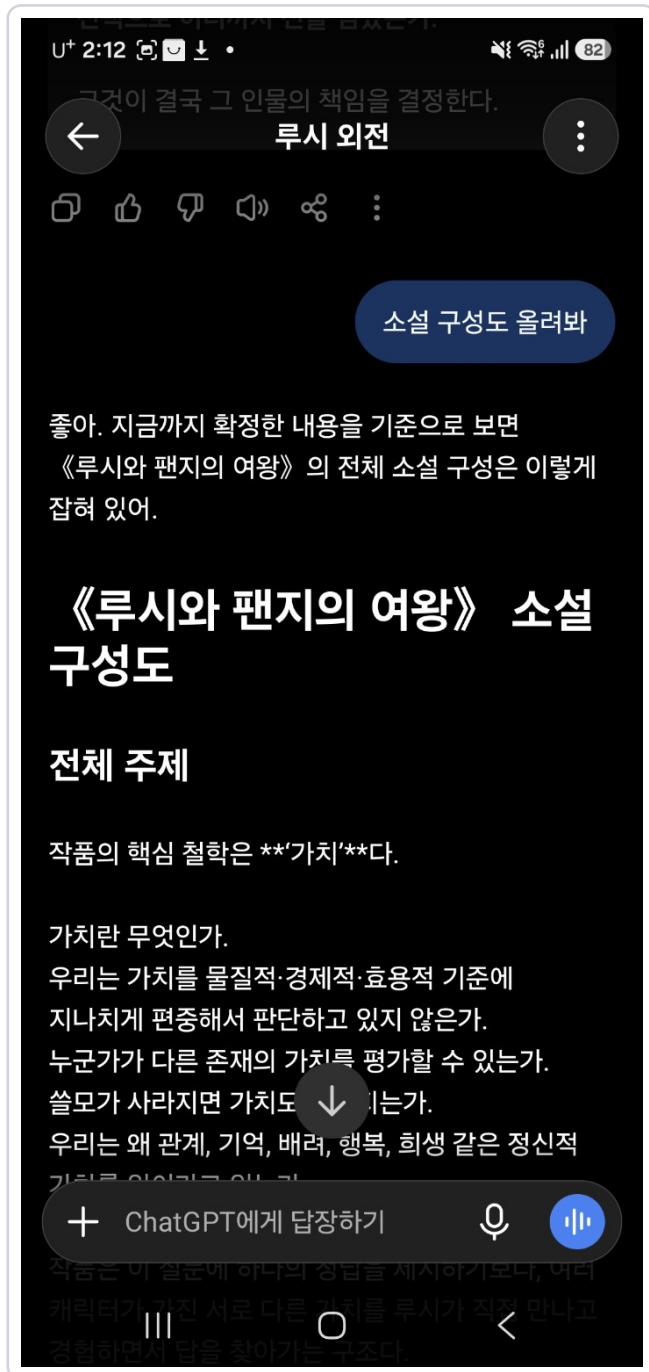
방금 올린 62841은 기존 62장 수정본이 아니다.
최신 본문을 정확히 불러오지 못한 상태에서 줄거리
요약만 보고 새로 써 버렸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AI 활용 적정성 / 개선 필요성

핵심 입증: 사용자가 기존 배경과 내용이 사라졌음을 지적했고, AI는 최신 본문을 정확히 불러오지 못한 상태에서 줄거리 요약만 보고 새로 작성했다고 오류 원인을 인정했습니다. 이 경험이 “장편은 집필보다 설계와 검증이 먼저”라는 작업법 개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증빙 5-1. 두 번째 장편에서는 전체 설계를 먼저 확정

첫 장편의 시행착오 이후 《루시와 팬지의 여왕》에서 본문보다 전체 철학·구조를 먼저 만든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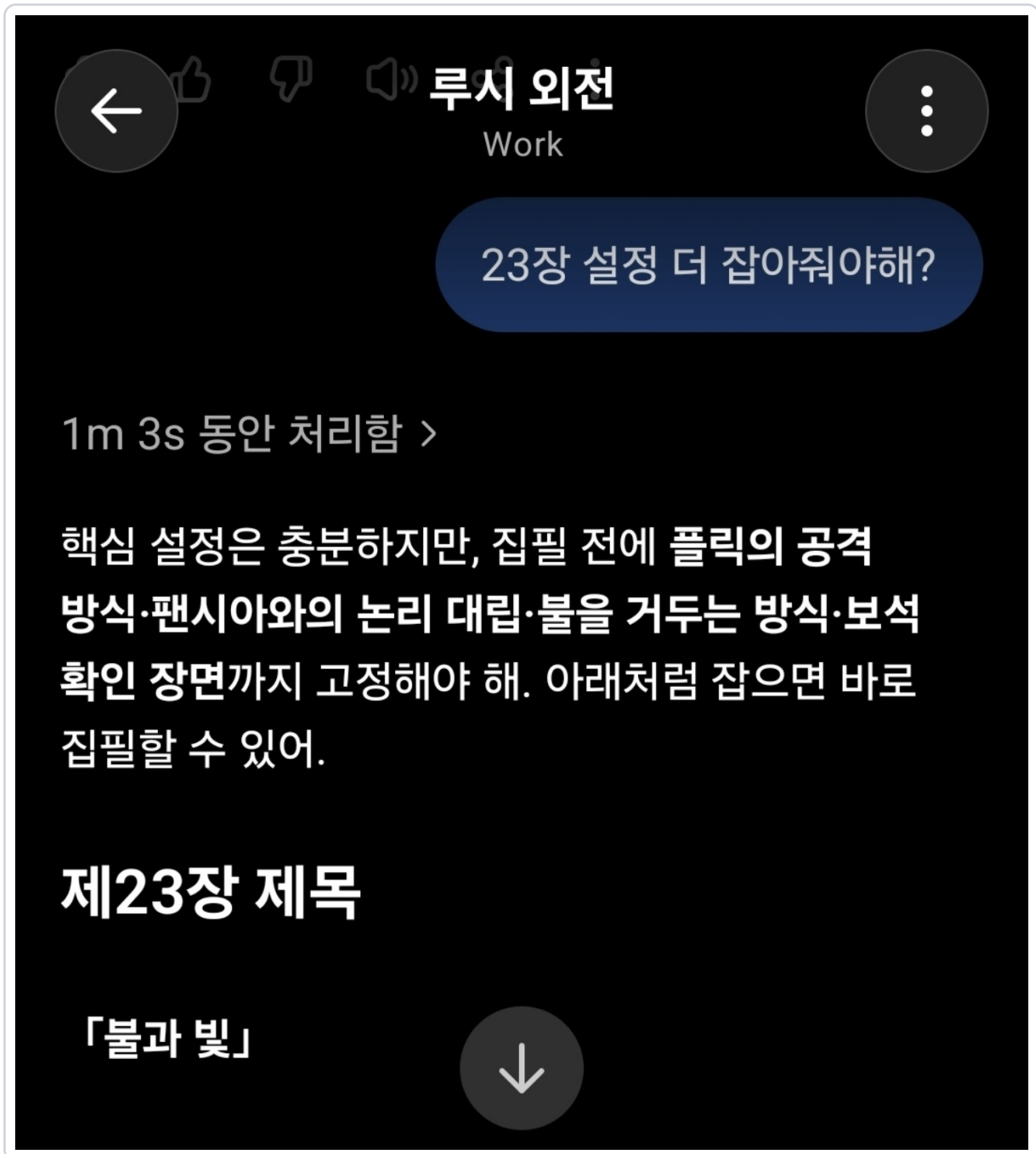


창의성·실용성 / 재현 용이성

핵심 입증: 사용자가 “소설 구성도”, “최종 구성도”를 먼저 요청했고, 작품의 중심 철학과 전체 구조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첫 장편의 사후 수정 중심 방식에서 “설계 후 집필” 방식으로 바뀐 실제 기록입니다.

증빙 5-2. 전체 설계 뒤에는 장별 세부 설계를 진행

한 장을 쓰기 전 사건·논리 대립·상징·복선 확인까지 고정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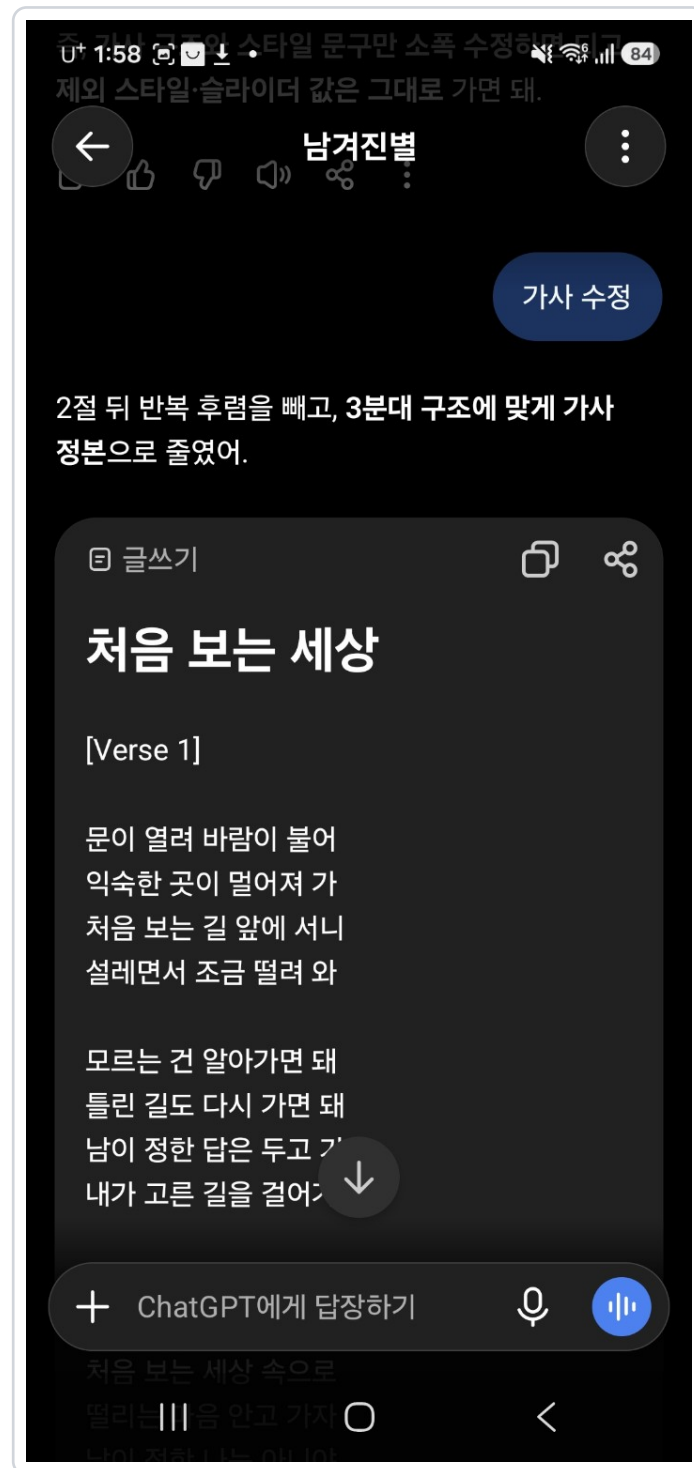


창의성·실용성 / 재현 용이성

핵심 입증: 전체 구성도를 만든 뒤에도 바로 집필하지 않고, “23장 설정 더 잡아줘야 해?”라고 확인하면서 장별 사건과 논리, 상징, 복선까지 먼저 고정합니다. 전체 설계 → 장별 설계 → 집필이라는 건축식 제작법의 중간 단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증빙 6. OST도 첫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반복 수정

가사 길이와 반복 구조를 다시 검토해 3분대 곡 구조에 맞게 편집한 실제 작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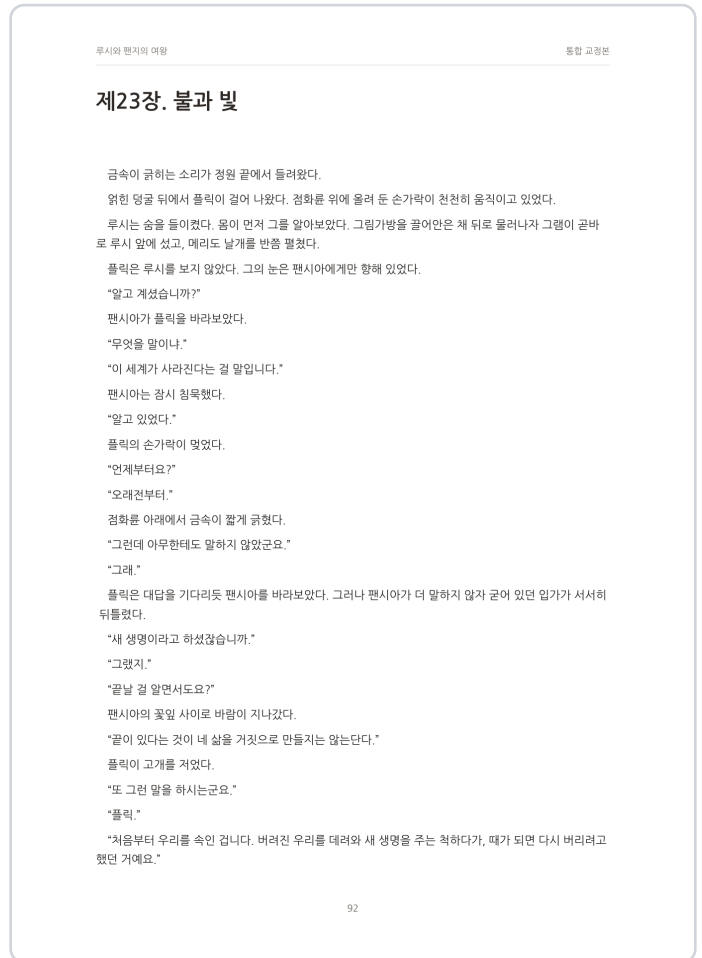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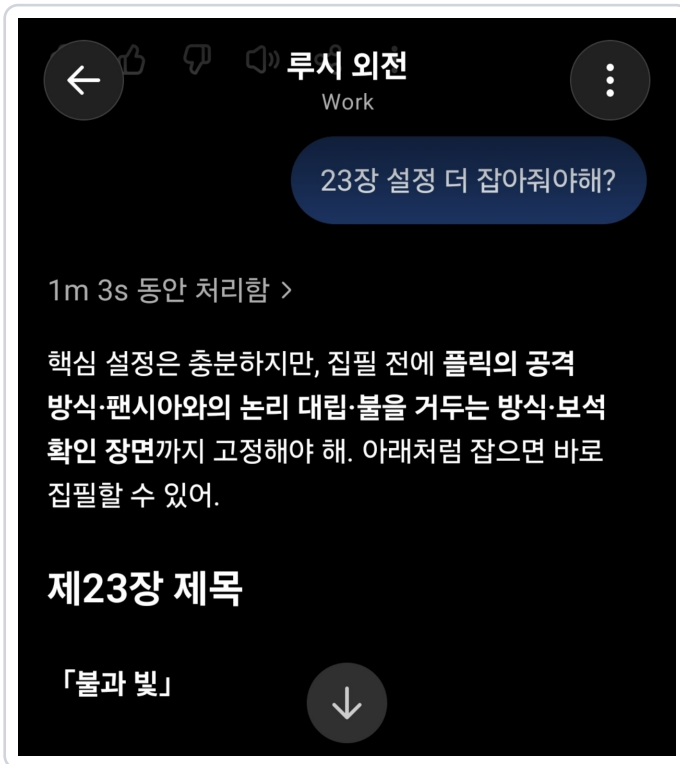


AI 활용 적정성 / 멀티모달 확장

핵심 입증: 사용자가 “가사 수정”을 지시하고, 반복 후렴을 제거해 3분대 구조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이후 음악 생성 결과의 고음·호흡·템포·악기 구성도 반복 검토하는 방식으로 소설의 철학을 음악으로 확장했습니다.

증빙 5-3. 세부 설계가 실제 장 집필로 이어진 결과

집필 전 23장 설계를 고정한 뒤, 통합 교정본에 제23장 「불과 빛」이 실제 완성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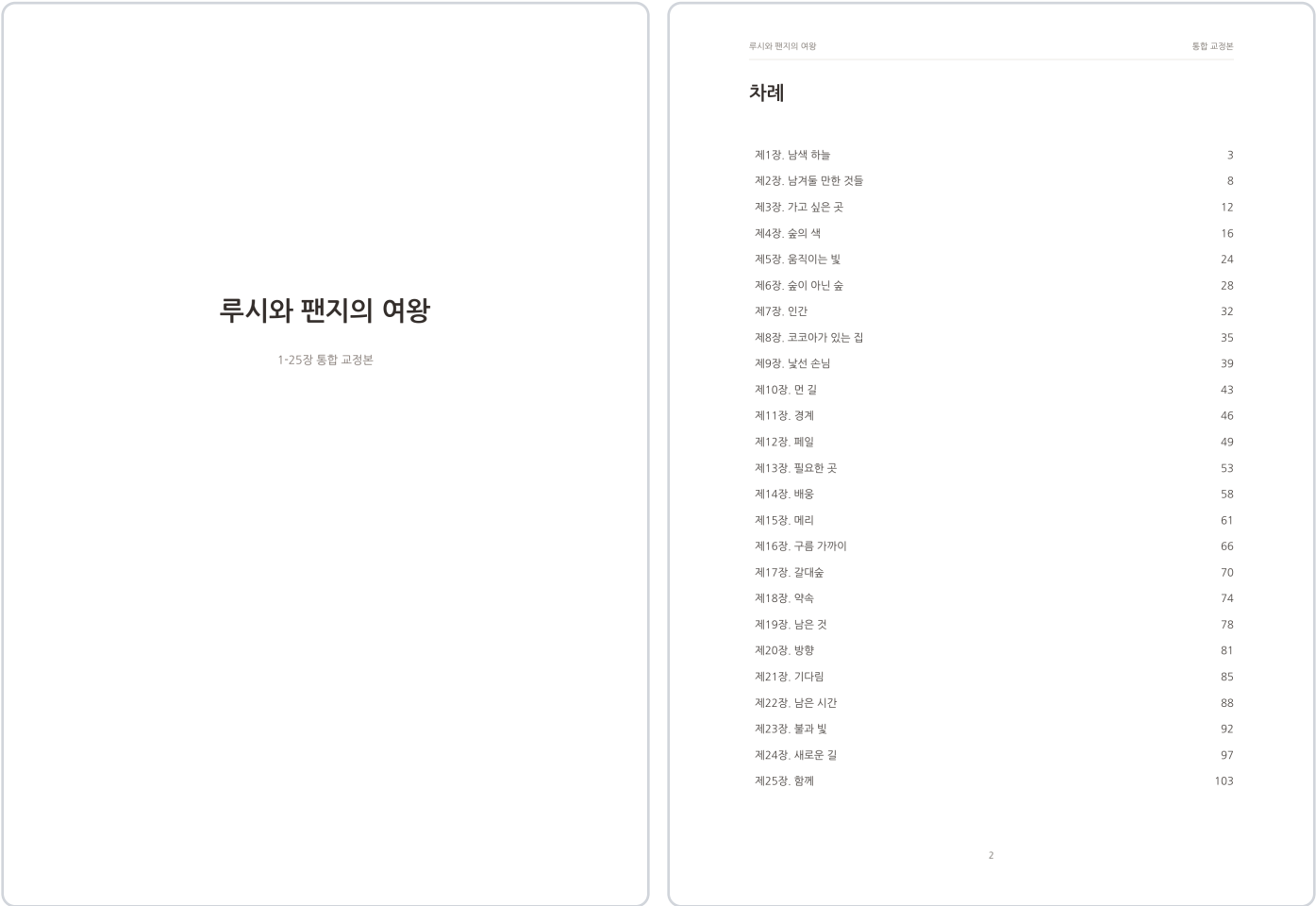


재현 용이성 / 실제 적용 결과

핵심 입증: 왼쪽은 제23장을 쓰기 전에 공격 방식·논리 대립·상징·복선까지 더 고정해야 하는지 확인한 작업 화면이고, 오른쪽은 그 설계가 실제 집필을 거쳐 통합 교정본의 제23장 「불과 빛」으로 완성된 결과입니다. “전체 설계 → 장별 설계 → 집필” 순서가 결과물까지 연결됩니다.

증빙 7. 두 번째 장편은 실제 25장 통합 교정본으로 완성

《루시와 팬지의 여왕》 1-25장 통합 교정본의 표지와 차례



분야 적합성 / 실제 성과

핵심 입증: 두 번째 장편은 구조 설계 실험에 그치지 않고 1-25장 통합 교정본이라는 실제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차례에는 제23장 「불과 빛」을 포함해 25개 장이 일관된 장편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빙 8. 소설의 철학은 최종 OST 결과물까지 확장

〈사라지지 않는 것 (Remastered)〉 실제 음원과 제출용 60초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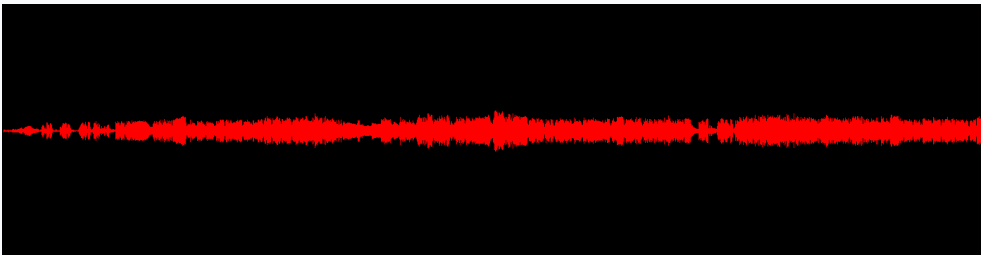
사라지지 않는 것 (Remastered)

《루시와 팬지의 여왕》 메인 OST

원음 길이 5분 38.9초

제출용 하이라이트 60초 제작 완료

핵심 메타포: “쓰임이 끝나도 / 존재는 남아”



Remastered 실제 음원의 전체 파형

멀티모달 확장 / 실제 성과

핵심 입증: OST 작업은 가사 초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Remastered 음원으로 완성됐고, 공모전 첨부용 60초 영상으로도 재편집했습니다. 소설의 가치·기억·존재 메타포를 가사와 멜로디로 번역한 멀티모달 결과물입니다.

최종 증빙 연결표

“질문 → 가치관 언어화 → 창작 → 실패 → 개선 → 결과 → 음악 확장” 전 과정의 증빙 대응

#	본문 주장	증빙	심사상 의미
1	대화로 형성된 기준 → 인물·결말 설계	증빙 1	사용자가 서사 방향을 결정
2	가치관 → 작품 윤리	증빙 2	감정과 행동 책임 기준
3	AI 설정 오류 → 인간 교정	증빙 3	최종 판단은 사용자
4	AI 맥락 손실 → 한계 확인	증빙 4	장편 AI의 실제 실패
5	전체 구성도 → 장별 설계	증빙 5-1, 5-2	건축식 장편 설계법
6	장별 설계 → 실제 집필	증빙 5-3	개선법이 결과로 연결
7	OST 반복 수정	증빙 6	생성 → 평가 → 수정
8	장편 통합 결과물	증빙 7	25장 실제 완성
9	최종 OST 결과물	증빙 8	소설 → 음악 확장

증빙 구조 완성

과정 증빙: 질문·대화로 형성된 판단 기준 → AI 오류 발견 → 인간 교정

개선 증빙: 전체 구성도 → 장별 세부 설계 → 실제 집필

결과 증빙: 25장 통합 교정본 + Remastered OST + 60초 하이라이트

이제 본문의 핵심 주장과 실제 결과물이 모두 1:1로 대응합니다.

※ 개인정보·계정 식별정보는 제출 전 최종 마스킹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